이 부처님 법은 말 없는 말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다고 하고,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항상 남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내 몸뚱이 하나도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인데, 하물며 이 우주 천하가 다 더불어 같이 살지 어떻게 혼자 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으라고 놓으라고 하니까, 놓기는커녕 놓는 것까지 들고 있어요. 주인공을 찾으라니까 "주인공! 주인공!" 입으로만 부르는데, 진정코 말없이 통신이 되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이 참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느 분은 " '주인공! 주인공!'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됩니다." 하는데 하, 참!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름을 찾지 말고 형상을 찾지 마라. 이름도 형상도 네 이름 네 형상이다."라구요.

'일체제불의 마음' 노래하죠? 그거를 잘 생각해서 새겨 보세요. 저 형상은 바로 자기 형상이요, 저 마음은 자기 마음이요, 생명도 자기 생명이요,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이죠. 그래서 법당에 들어오면 같이 하나로 몰아서 놓고 내가 예배 올리고, 나갈 때는 같이 몰아서 안고 예배 올리고 나간단 말입니다. 둘이 아닌 까닭이죠. 이리로 가도 둘이 아니요, 저리로 가도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기필코…. 요즘 이름도 알 수 없으리만큼 병 증세가 많이 나오는데, 병 증세뿐만 아니죠. 가혹한 악행이나 풍기가 문란하고 옹졸한 뭐,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가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늠름하게 살 거를, 그렇게 할 줄 모르고 정신계는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한생각에 만 리를 뛸 수 있는데 이 몸으로 한 발짝을 떼어 놓는 게 그게 뛰는 겁니까? 만 발자국을 뛰는 거보다 한생각 하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무(無)의 세계, 즉 정신세계를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지, 느껴 보세요!

이렇게 가까워요. 스위치를 누르기 이전이 불이 들어오기 이전이고, 스위치를 눌러 가지고 볼 때는 불이 들어온 현실세계예요. 그렇게 빠른 세상을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세계를 그렇게 무시하고 배척한다면 앞으로 우리 이 모습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겁니까? 악행이나 다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못 보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모두 생기는 결과라고 봅니다. 내가 한 마디만 더 하죠. 그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나이가 적을 때 얘기죠.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 사는 거를, 그때도 그렇게 지켜보려고 지켜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고생을 하고 못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거를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침입한 것은 잘못됐다 하지만 뭐를 하나 갖다 줬다면, 하다못해 성냥을 하나 갖다 줘도 그냥 빈 접시를 돌려주는 법이 없어요. 그걸 본 거예요. 빈 접시 주는 법이 없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반드시 지켜서, 위로 충성할 줄도 알고 밑으로 다스릴 줄도 안다 이겁니다. 아, 그 정신력이라는 것은 투철해요, 아주! 남한테 미룰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분수를 지킬 줄 아니까,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떡하면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갈까 하는 생각이 없이,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아주 충실히 한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만큼밖에 못되니까 여기 이 자리의 소임을 맡은 거다. 또 나보다 훌륭하니까 윗자리를 맡은 거다.' 그렇게들 하는 거를 볼 때…. 또 요만한 애들도 장난감을 하나 줬다 하면 그 이튿날은 반드시 다른 장난감을 갖다 줘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무섭구나! 아주 철저하게 무섭게 다루어졌구나! 야,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건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 후에 '아하, 이 법칙이 다 부처님한테서 간 거로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죠. 하여튼 부처님의 법을 아니 갖다 쓴 게 없어요. 행전을 각반으로 썼고, 우리 그때의 도포를 하오리로 변경해서 썼고, 우리 오조 가사를 사무라이 총받이로 만들었구요, 우리네 발우공양을 가져다가 자기들 공깃밥으로 변경했고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렇게 충실히 받아들이게 된 것은 사명 대사나 서산대사의 그 묘한 광대무변한 법을 보고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주 그때서부터 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인들은 그렇게 정신력이 투철한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500년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탓을 하기 이전에 내 집을 제대로 간수해야죠. 지금 무슨 병, 무슨 병이 들었느니, 나는 누구한테 당했느니 이런 소리하기 이전에, 내 집부터 잘 간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부터 내가 자유스럽게 다뤄 놔야 그것을 남한테 뺏기지 않고, 내 정신을 뺏기지 않게 돼서 내 몸이 나빠지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 내 가정을 지키지 않느냐, 내 국가를 지키지 않느냐, 내 국가 안의 국민을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빈껍데기가 돼 가지고도 빈껍데기를 또 잡느라고 애쓰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루바삐 마음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때 보면 어느 신도는 말없이 왔다가 말없이 그냥 나가요. 그래서 나는 빙긋이 웃죠. 왜냐하면 '허, 저 말없이 하는 거에 맛을 들였구나!' 하고요. 이 부처님 법은 말 없는 말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전달이 되죠. 일체 만물이 다요. 말로 하면 말이 늘어가서 봉변을 당하는 수도 있지만, 말 없이 말을 한다면 늘어 가지도 줄어 가지도 않아서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이 도리를 하루 속히 체험하고 풀어 나가려면,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아주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이 "야, 네 나무는 네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지 네 나무가 딴 나무에서 찾으면 되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다지고 또 다지고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계(五戒)를 저는요, "술 아주 먹지 마라. 도둑질 아주 하지 마라." 이러진 않았죠. 왜 그렇게 바꿨느냐 하면, 술을 먹어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내가 많이 먹어서 내 몸을, 여러 생명들이 사는 집을 망가뜨리지 말고 적당하게 먹어야 약주가 되지, 만약에 적당치 못하다면 망주가 되는 겁니다. 자기 몸에도 해로워서 결국은 빨리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나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가정까지 파괴가 돼요. 가족들까지 다 죽여요. 그러니 이렇게 나쁜 일이 어딨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마라." 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좀 여유가 있는 물건을 내가 딴 사람에게 줘도 도둑질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줘도 그게 도둑질해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허허허…. 그런데, 내가 남을 줘도 도둑질인데, 이거는 도둑질이지만 도둑질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도둑질 아닌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함이 없이 하는 도리기 때문에 도둑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가친척들이 있는데 말을 잘해서 이쪽 집 거를 저쪽에다가 갖다 주는 수도 있죠. 그거는 말 도둑질을 해서 주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말 도둑질이라 하더라도 둘이 아닌 사랑으로써 맺어지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둑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말을 잘못해서 연결이 돼서 싸움이 나게 하지 말고, 싸움이 나서 의절한 사람도 이쪽에다 말을 할 때는 저쪽 말을 잘해 주고, 저쪽에다 말을 할 때는 이쪽 말을 잘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다 잘못되지가 않는 것인데, 외려 이쪽 말을 저쪽에다가 안 좋게 해 주고, 저쪽에다 이쪽을 안 좋게 말을 해 주고 이러니까, 점점점점 더 응어리가 커져서 죄업이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죠. 그게 말로 해서 짓는 구업(口業)이죠, 구업! 입으로 짓고 입으로 받는다 이겁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하는 건, "둘이 아닌 까닭에 그 공한 자체도 공했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마저도 공했기 때문에 답답한 것마저도 놓으면 아주 편안해지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떠한 큰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조그만 일은 조그만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입이 딱 벌어지거든요.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일이나 조그만 일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 **내가 산다, 내가 했다,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 **항상 남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게 됩니다.**
> **내 몸뚱이 하나도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인데**
> **하물며 이 우주천하가 다 더불어 같이 살지**
> **어떻게 혼자 삽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은행에서 차압을 당해서 이제는 옴짝없이 다 뺏기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이젠 애들하고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귓속에다 대고 얘기해 줬죠. "당신만 알고, 당신 주인공이 나가서 일을 하게 만들어. 그럼 될 거야." 그랬어요. 그 사람 주인공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주인공이라면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가서, 그 입자가 나가는 걸 보살이라고 하죠, 얼른 쉽게 말해서. "부처님 한생각에 보살 천백억이 나가서 응신(應身)이 돼 주느니라." 이렇게. 그거를 얼른 알아듣기 쉽게 말하려니까 부처님 원자 안에서 입자가 나가서 모두 제각기 다 자기 소임을 해 준단 얘기죠. 그걸 거짓으로 생각을 해선 안 돼요.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계로 들어가니까 심성과학이라고 해도 되죠. 심성을 꼭 넣어야 정신계하고 물질계하고 똑같이 중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과학이 돼서 문제가 된 거지 심성과학이라면 어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병이 많이 오고 그러는 것도 이 모두가 주인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내 집을 지키려면 주인을 둬야 내 집을 지키죠. 집을 비우고서 어디 나가려면 집 지키는 사람을 꼭 하나라도 놔두고 가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않아요?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또 '주인공! 너 집 좀 지켜 줘.' 하고선 나가는 사람도 있습디다, 있기는. 허허허…. 그랬더니 고스란히 그냥 있더래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이 개개인 집이 한 몸의 집인데, 집주인이 있어야 세균성, 영계성, 인과성, 업보성 이거를 다 막고 대치를 하죠. 그런데 주인이 없다면 대치를 못 하죠. 그래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어야 한다, 반드시 자기 뿌리에서만이 에너지가 흡수돼서 자기 나무에게 주어진다는 그 믿음을 진실히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만 얘기하죠. 질문들 하십시오.

질문자1(남) 스님, 저희들이 좀 안됐다 한다든가 좀 뭐한 것을 봤을 때 생각을 내서 마음을 돌려주는 것과 생각이 나서 마음을 돌려주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하여 주십시오.

큰스님 우리가요, 무슨 생각을 내기 이전에 벌써 뭐가 닥치면 그 닥치는 대로 자기가 그냥 보고 듣고 닥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지, 무슨 생각을 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그래서 닥쳐왔으니까 '아, 이것을 어떡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난 거죠, 그냥? 생각이 났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오게 한 것도 너니까 해결하는 것도 너야.'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생각을 일부러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없이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또 하지 마세요.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말을 할 땐 말을 해야 하는데, 일부러 지어서 마음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야 그것이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천 마디 하고도 한 마디도 한 사이가 없는 사람이 있고, 한 마디를 하고도 그냥 수없이 많은 말을 한 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분별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환경에 따라서 용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냥 거기다 돌려놓고 지켜보는 그런 멋있는 멋쟁이가 돼야죠.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12월 4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4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